

일상생활 실천의 ‘전술’

베이징 ‘찬제(殘街)’의 ‘도로 점유’ 현상을 사례로

왕제원

번역: 김호걸

요지: 현대 중국의 도시에서 ‘도로 점유’는 이미 보통사람들 일상생활의 자연환경이 되었고, ‘사적 이익’을 피하기 위해 ‘공공 공간’을 침범하는 ‘전술’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개인으로 인해 공공에 해를 끼치는” 중국식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것, 중국민속학은 응당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간 논쟁의 편집성(偏執性)을 초월하여, 만족스러운 일상생활 실천의 가능성을 탐구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도로점용, 전술, 공간 수사학(The Rhetorics of Space), 공간 어법학(The Syntactics of Space)

‘도로점용’은 특정 개인 혹은 집단이 공공의 공간(예를 들면, 도시 도로, 교량, 광장 등)을 침범, 점유하여 사적인 이익을 꾀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현대 중국의 도시에서 ‘도로점용’ 현상은 아주 흔하다. 중국 도시 기획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법규에 의하면, ‘도로점용’은 위법행위에 속하고, 도시행정관리 법집행 부문(약칭하여 ‘성관(城管)’)은 법에 의거하여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실제로 ‘도로점용자’와 ‘단속반’ 간의 모순은 아주 첨예하고, 쌍방 간 격렬한 충돌이 심심찮게 발생한다.

도시기획자, 입법자 및 법 집행자의 관점에서 볼 때, 도시 공공공간은 ‘공공성’을 갖고 있어, 어떤 개인이나 집단도 관련 기관의 비준이나 권한 부여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공공 공간을 점용하여 상업행위에 종사하는 것은 모두 위법적인 ‘도로점용’에 해당되고, 법에 의거하여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도로점용’의 ‘도(道)’는 내재적으로 공공 속성을 띠고 있고, 어떤 개인도 침점(侵占)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그러나 ‘도로 점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모든 공공 공간은 역사적, 사회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도시화 과정에서 끊임없이 ‘되어가고 있는(becoming)’ 공공 공간이다. 그리고 소위 이들 ‘도로 점용자’는 마찬가지로 특정 ‘공공 공간’ 경관의 ‘존재(being)’를 구성하는 데 참여하여, 자연스럽게 해당 공공 공간의 일부에 속하게 된다. 이외에도, 도시 관리자와 도로 점용자는 모두 시민의 권익-모든 ‘공공 공간’은 응당 시민의 가정생활, 근무, 여가생활을 위해 편리함과 편안함을 제공해야 한다-을 위해 서비스해야 한다. 그러나 도로 점용자, 시민, 도시 관리자를 막론하고, 그들은 모두 내재적으로 이익의 다원성, 모순성,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비록 공공

공간이 원칙적으로 ‘공공성’을 지니고 있을지라도, 실제 상황에서는 오히려 늘 ‘개인성’의 침탈과 점령 속에 파묻혀버리기도 한다.

중국의 각급 도시에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도로점용’ 현상과, 여기에서 나타나는 ‘공익과 사익’의 갈등을 해석함에 있어서, 프랑스 역사학자 미셸 드 세르토(Michel de Certeau)가 제시한 ‘책략’과 ‘전술’의 두 개념은 중요한 시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의 소위 ‘책략’이 가리키는 것은 ‘규범성의 틀’로서, 어떤 장소 혹은 언어 차원에서 모종의 강제성과 감시³적 질서를 만들고, 통제하고, 강압하는 것을 가리킨다. 소위 ‘전술’이라 함은 이러한 질서적인 ‘책략[기주(寄主, host)로서]’을 빌려, 보통사람들이 그것들의 ‘사용방식[기생물(parasite)로서]’을 이용하고 조작하고 바꾸는 것을 말한다.⁴ 세르토가 볼 때, 일상생활 연구의 핵심 임무는 당연히 이들 서로 다른 맥락(context)에서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새롭게 사용하는 방식’이다. 즉 일상생활의 실천자는 ‘장소’의 반대적 타자(the other)(‘책략’)로서 갖가지 ‘전술’을 빌린다. 세르토는 마음에 드는 듯한 감정으로 평론하기를, 이러한 ‘전술’은 자기 특유의 형식과 창조성을 갖고 있으며, 재생산과 재조직의 행위를 항상 살그머니 진행한다. 도시기획과 도로점용 사이의 모순은 표면적으로 볼 때, 분명 세르토가 말한 ‘책략’과 ‘전술’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과 유사하지만,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심지어는 어떤 풍자(諷刺)적인 의미까지 갖고 있다.

이 글은 베이징 시(北京市) 차오양 구(朝陽區) 덩푸좡 촌(定福庄村) 잔제(殘街)의 도로 점용 현상을 통해 다음 세 가지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1) 세르토의 일상생활 ‘전술’에 관한 사상을 중국 현대 도시 중의 일상생활 실천을 분석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중국 현대 도시 중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도로 점용 현상의 본질은 무엇인가? 3) 민속학은 이상적인 일상생활 실천(모델)을 만들어 내는 데 응당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1. ‘잔제’의 일상

베이징 시 차오양 구 덩푸좡 동가(東街)와 덩푸좡 서가(西街) 사이로 동서를 횡으로 관통하는 도로가 있는데, 이곳 사람들은 이 거리를 ‘잔제(殘街)’라 부른다. ‘잔제’의 북쪽은 ‘톈젠난위안(電建南院) 주택지구’⁵이며, 남쪽은 ‘강친창(鋼琴廠),⁶ ‘메이탄(煤炭) 간부관리학원 숙소’, ‘우진창(五金廠),⁷ ‘수이톈(水電)학교 직원 숙소’ 등 여러 기관의 숙소로 구성된 단층주택 구역이다. 동쪽은 중국 환메이(傅媒)대학⁸ 서문(西門)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서쪽은 덩푸좡 서가를 마주보고 있다.

2005년 무렵, 차오양 구 시정(市政)관리 부문에서 이곳의 도로를 넓혀 보수하면서, ‘잔제’의 주도로는 비교적 넓은 4차선 도로로 바뀌었다. 그러나 교통관리 부문에서는 도로상에 이에 상응하는 교통표지판을 뚜렷하게 설치하지 않았다. 차도(車道)의 양쪽으로는 4미터가 넘는 인도(人道)가 있고, 인도에는 3~5미터 사이로 조경수를 새로 심어, 여름이면 나무그늘이 드리워진 도로가 되었다. 실제 공공도로교통의 기준에서 말한다면, ‘잔제’는 주민들의 통행 수요를 완전히 만족시켜 주었다. 바꾸어 말하면, 도시 도로교통의 기획과 설계 측면에서 말한다면, ‘잔제’의 하드웨어 시설은 기준에 부합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잔제’에서 교통 정체현상이 매일 발생하고 있다.

‘잔제’를 걷는다면, 인도의 양쪽은 본래 민용(民用) 주택⁹의 아파트인데, 무단으로 변경해서 상업용 점포를 내고, 주택의 상용(商用) 면적을 늘리기 위해 업주들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인도를 잠식한 것을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전술’은 아주 다양하다. (본래 없던) 대문을 밖(도로 방향)을 향해 내거나, 인도에 각종 설비를 설치하기도 하고, 각종 선로(線路)를 끌어다 설치하고, 탁자와 의자 등을 인도에 놓기도 하며, 혹은 장기간 인도를 점유하여 상품이나 생활용품을 놓기도 하며, 심지어 어떤 사람은

폐기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는 택자와 의자, 자동차, 큰 돌 등을 놓아 장기간 인도를 침점(侵占)하기도 한다. 여하튼 “인민의 지혜는 무궁하며”, 도로점용자의 ‘진술’ 또한 가짓수가 다양하고 끊임없다. 본래 ‘인도’였던 공공 공간은 그 공공성을 기본적으로 상실하였고, 행인들은 인도를 정상적으로 통과할 수가 없게 되었다.

민용주택이 호주(戶主)에 의해 불법적으로 개조되어 상업용 공간이 되면서, 점포 주위의 유동 인구나 정체 인구는 자연스럽게 대폭 증가되었다. 상점, 고객, 행인의 교통 도구(화물차, 가정용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삼륜차 등)가 무질서하게 인도와 차도에 놓여 있고, 임시 주·정차 하는 화물차와 쓰레기차가 교통 정체를 유발하여, 인도와 차도는 늘 임시 주차장으로 변한다. 그래서 부근의 주거지역을 출입하는 주민, 지나가는 행인, 자전거, 삼륜차, 자동차, 유기견 등은 일단 틈만 보이면 차도를 가로질러 다닌다.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마 통행의 불편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통행방식에 익숙해져 있다. 이곳을 지나가면, 어떤 자동차 운전자들이 교통 정체로 인해 클랙슨을 마구 누르고 욕설을 내뱉으며 분노를 삭이는 것을 볼 수 있고, 어떤 행인은 몸이 차량에 스치거나 놀라서 장본인과 말다툼을 하기도 하며, 혹자는 줌도둑에게 소매치기를 당할까봐 신경을 곤두세우기도 한다. 그러나 10여년을 하루같이 이곳 사람들은 여전히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다. 도로 점용자에게 어떤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예를 들어, ‘찬제’의 중간 즈음 도로의 북쪽에 과일가게가 인도와 일부 차도를 장기간 점용하고 있는데, 그녀의 행위로 인해 자동차가 서로 비켜가기가 곤란할 정도였다. 하지만 차주(車主)들은 한 번도 과일가게의 위법과 부도덕을 비판하지 않았고, 노력보거나, 거친 말을 주고받거나, 손과 발로 치고 차는 것에 습관이 되어 있다. 그러면 과일가게 주인은 한쪽에 서서 무고(無辜)한 얼굴로 강 건너 불 보듯 한다.

2. ‘찬제’의 ‘일상’의 형성

‘찬제’ 현재의 모습은 역사적으로 형성되었다. 2003년 이전, ‘찬제’는 ‘딩푸좡 중가(中街)’라 불렸다. 딩푸좡 중가는 중국촨메이(傳媒)대학의 ‘바이양다다오(白楊大道, 백양나무 큰길)’와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었다. 당시, 중국촨메이(傳媒)대학의 전신인 베이징광보 학원(北京廣播學院)의 교정은 백양나무 큰길의 남쪽 부분에만 한정되어 있었다. 북쪽 부분은 원래 메이탄(煤炭)간부관리학원에 속해 있었다. 2004년, 이 두 학교가 합병되어 현재의 중국촨메이(傳媒)대학이 되었다. 본래 두 학교를 갈라놓았던 중간 도로를 지금 남쪽과 북쪽 교정의 사이에 있는 백양나무 큰길이 되었다. 이때부터 백양나무 큰길의 서쪽 끝에 중국촨메이(傳媒)대학의 서문(西門)이 설치되었다.

중국촨메이(傳媒)대학 서문의 설치에 딩푸좡 중가의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사업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2004년부터 이곳의 주민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제멋대로 수많은 불법건축물을 지었고, 딩푸좡 중가는 이로 인해 베이징 차오양 구의 유명한 ‘불법 건축물 거리’가 되었다. 제일 과장된 시간으로는 하룻밤 사이에 이곳 주민들이 54개의 간이 상품방(商品房)¹⁰을 지은 적이 있고, 그들은 양쪽의 인도를 거의 전부 침범하여 점령하였다. 차오양 구의 성관(城管)은 일부 주민의 신고 압력에 못 이겨 여러 차례 소탕 식으로 이들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였다. 그러나 이들 성관 직원들이 철수하자마자 불법건축물은 아주 빠르게 다시 세워졌다.

조직적으로 공공 공간을 점용하고, 또 각종 이유를 들어 자신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해명하는 것은 이곳의 작은 주민집단(전하는 바에 의하면 모두 35가구 정도이다)이며, 그들 중에는 장애인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직장을 잃은 실업자들이다. 살 방법을 찾기 위해 그들은 사방팔방의 사구(社區) 거

민위원회(居委會)¹¹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효과적인 도움을 얻지는 못했다. 공공롭게도 중국환매이(傳媒)대학이 생기면서 그들은 이곳에서 점포를 운영하여 얻는 소득으로 생존하고자 하였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들은 현지 도시기획 부서를 찾아가 지원을 받으려 했으나 비준을 받지 못했다. 그 뒤로 그들은 덩푸쑹 서가에서 허가 없이 경영하는 선례를 모방해, 연합하여 불법 임시 건축물을 세웠다. 이들 주민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그들은 장애인인 자주적인 창업으로, 국가정책 또한 ‘자주 창업’을 독려하는데, 더군다나 창업자가 ‘장애인’이다. 장애인 신분을 강조하기 위해 그들은 독단적으로 덩푸쑹 중가를 ‘찬(建)제(殘建街)’¹²라 명명하였다.

2) 그들은 합법적인 경영 방법을 모색한 적이 있었으나 관련 부문의 비준을 받지 못하였다. 이 말은 즉 정부 측의 냉담과 부작위가 그들로 하여금 불법적인 수단을 찾게 하였다는 것이다. 하물며 덩푸쑹 서가는 오래 전부터 불법건축물에서 영업하고 있으나 차압 조치를 받지 않았다.

3) 그들은 스스로 문명적이고 위생적인 서비스 환경을 만드는 것을 시도하였고, 심지어는 ‘찬제’를 ‘시범거리’로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그들은 행동을 통해 성관(城管)의 승인을 받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요구가 비준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좋은 의도’는 성관(城管)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불법건축물들은 ‘원대한 뜻을 실현하지 못하고’¹³ 제거되었다. 그러나 상술한 35가구의 주민들이 생존을 피하기 위한 공간 자본으로서, ‘찬제’의 잠재적 가치는 지금까지 그들에 의해 저평가되거나 포기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불법건축물이 철거된 후, 그들은 또 다시 인도에 (불법건축물을 지을) 구역들을 표시하고, 면적의 대소에 따라 정찰가격을 매겼다. 그들은 이러한 공공 공간이 그들의 개인 소유라고 말하고, 떠돌아다니는 노점상에게 마음대로 세를 내주고 관리비를 받는다. 이들 노점상이 종사하는 업종은 아주 다양하다. 꽃, 과일, 애완동물, 옷, 장식, 컴퓨터와 핸드폰 관련 용품 등을 판매하거나, 이곳에는 이발관과 쓰레기 수거장, 식당, 음료점, 고기구이점 등도 있다. 방대한 대학생 소비집단과 주변에 밀집된 주거 인구를 마주하고 있어서, 찬제의 사업기회는 아주 낙관적이다. 인도 위에 있는 가게자리를 세낸 소매상인은 심지어는 앉은 자리에서 곧바로 자신이 얻은 가게자리를 더 높은 가격에 세를 받고 늦게 온 다른 상인에게 내어주기도 한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일부 자칭 ‘장애인’이라 하는 주민들이 불법적으로 공공 공간을 유용하여 개인 혹은 작은 집단의 이익을 꾀하였다. 그들의 행위는 도시관리조례를 위반하였고, 또 현지주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응당 계속 존재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 사실 상, 각종 신고를 받은 후 여러 압력에 못 이겨, 성관(城管)도 여러 차례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 도로점용자의 ‘전술’은 아주 뛰어나, ‘전략’에 썩 성공적으로 대응하는 추세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음의 사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1) 성관(城管)의 소탕식 철거 행동은 단지 관례에 따른 공무 집행일 뿐이다. 인도에 세를 내어 개인사업을 하는 한 소매상인이 말한 대로 “사실 덩푸쑹 중가와 서가 일대에 불법건축물이 아주 많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해가 지나도, 와서 단속하는 사람이 없다 (...) 분명 최근은 해도 너무 한다. 움직임이 너무 커졌다. 아니면 상부에서 명령을 내렸을 것이다.” 관례에 따른 공무집행이라면, 그것은 성관(城管)의 일이 폭풍우와도 같이 오기도 빠르지만, 가기도 역시 빠르며, 게다가 단지 어찌다 한 번 일 뿐이다.

2) 범불책중(法不責衆)¹⁴의 상식에 의거하여, 소상공인들은 성관(城管)의 철거행동이 단지 품을 잡는

정도임을 알고 있다. 많은 상인들은 “안심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다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데), 분명 (도로점용 시설을) 철거하지 못 할 거야.”라고 말한다.

3) 자연 전술과 유격 전술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목전의 환경을 당연히 그러한 환경으로 바꾸려고 시도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이런 환경에 적응하고, 신고하려는 마음을 포기하게끔 한다. 그러나 주민이 소상공인으로 하여금 도로점용을 포기하도록 할 수는 없다.

십여 년이 흘렀고, ‘찬제’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불법건축물은 철거되었다. 하지만, 35가구 주민은 여전히 ‘찬제’라는 이 공공 공간의 인도를 경영하고 있고, 그들은 불법으로 세를 내어주고 있으며, 임대자와 세입자는 불법적인 거래관계를 맺고 있다. 인도에서의 경영행위가 점점 차도로 확대되고, 차도는 인도와 차도의 기능을 다 담당하고 있다. 여름날 저녁, ‘찬제’에는 죽 늘어서 있는 노천 구이집에서 나는 연기가 가득하고, 바닥은 온통 쓰레기이며, 손님들은 도로가나 차도에서 먹고 마시고 담소를 나눈다. 자동차와 행인들은 그들 몸을 스치고 지나가며, 거대한 선풍기는 구이 화로에서 나는 자욱한 연기를 지나가는 행인에게 불어제치고, 행인들은 기침을 하면서, 고개를 기울이고 그 곁을 지나지만 피할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소리 없이 빈번하게 왕래하는 ‘헤이모디(黑摩的)’¹⁵가 도깨비처럼 휙휙 지나가는데, 아마도 이것이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가장 큰 위협일 것이다.

3. 일상생활 실천의 전술과 예술

세르토는 도시공간의 실천에 대해 생각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일련의 실천행위를 찾고 싶다. 그것은 가시(可視)적인 것과 판옵티콘(Panopticon) 감시체제와는 다르며, 혹은 이런 건축의 ‘기하(幾何)’나 ‘지리(地理)’와도 다르다. 공간에 관한 이러한 기획은 우리로 하여금 일종의 구체적인 ‘조작’ 형식(‘방법’)을 생각하게 하고, ‘다른 종류의 공간성’[공간에 관한 일종의 인류학적이고, 시의(詩意)가 풍부하고 신비한 경험], 그리고 살고 있는 도시의 불투명하고 맹목적인 변화를 생각하게 한다. 전이된 도시, 혹은 은유적인 도시는 이렇게 기획되고 가독적(可讀的)인 도시의 뚜렷한 문장 속에 스며들어 있다.”¹⁶고 하였다. 바로 이렇듯 도시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조작이(도시공간의 기획 설계가 아니라) 사회생활의 결정적 조건을 창조하였다는 것에 근거하여, 세르토는 미시적인 공간 실천을 도시 일상생활을 이해하는 열쇠로 삼았다.

그러나, 세르토의 국가권력과 사회기구에 대한 일관적이고 단호한 배척을 고려해보면, 도시공간 실천의 연구에 있어서 그가 줄곧 경직된 공간질서 속에서 보통사람의 ‘경미한 배척’의 브라운 운동(Brownian motion)¹⁷을 변별해내려고 시도하고, 늘 보통사람들에게 숨겨진 예상치 못했던 자원을 동원하는 것을 발견하거나, 항상 의명의 집단 중 권력 통제의 진정한 한계가 발생하는 이전(移轉)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미시적인 도시생활 실천 중 - 개인이거나 집단이거나를 막론하고 - 수많은 활동은 모두 도시화 체계가 관리 혹은 단속을 시도하는 대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오히려 종종 성공적으로 감시나 통제를 벗어나 계속 존재하고, 심지어는 사회 감독의 네트워크 속에 침투하여, 이미 통제능력을 상실한 감독기구로 하여금 이들 활동에 대해 슬며시 창조적으로 눈감아주게 한다. 물론, 이렇게 다양하고, 배척하고, 교활하고, 완고한 생활실천의 ‘전술’이 늘상 감시의 통제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날지라도, 사실상 그것들이 또 철저히 감시의 세력 범위 밖에 처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마찬가지로, ‘찬제’의 일상생활 실천은 결코 상술한 도로점용자의 위법성 행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보통 사람들의 보행과 멈춤, 기억과 서사 등도 포괄한다. 이러한 실천적인 행위가 모종의 ‘공간

의 문체학(文體學)을 구성하고, 그것과 ‘찬제’의 ‘공간의 어법학(語法學)’은 완전히 다르다.

(1) ‘찬제’에서 거닐기

도시계획자, 설계자와 관리자의 시각에서 볼 때, 공간설치는 어법학자와 언어학자들이 설정한 ‘본의(本義)’와도 같다. 이것은 일종의 표준적이고 정상화된 언어규범으로, 일체의 ‘파생의(派生義)’를 참고할 수 있는 틀, 즉 ‘공간의 어법’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일상, 언어, 혹은 보행자의 용법 중에서 여전히 찾아낼 수 없다.”¹⁸ 이런 의미에서 도시의 거리를 걷는 것은 ‘언어의 구술’이 ‘어법 규칙’과 갖는 관계와도 같다.

‘찬제’를 걸을 때, 어떤 보행자도 자연스럽게 찬제의 공간적 사전 설정(預設)에 적응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연공간과 인위공간의 사전 설정은 보행자에게 어떤 가능성(그는 이곳으로 통행해도 된다.)과 제한성(그의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 통과할 수 없을 수도 있다)을 제공한다. 또는 그로 하여금 다른 가능성과 제한성을 터득하게도 한다. 예를 들어, 그는 가로질러 갈 수도 있고, 길을 바꾸거나, 혹은 임시로 주시(注視)하며 걸음을 멈추거나, 혹은 쓴살같이 지나가며 어떤 공간 원소를 무시할 수도 있다. 바꿔 말하면, 그들은 단지 앞에 있는 공간질서 중에서 어떤 가능성과 제한성을 현실로 바꾼다. 그들은 분명 ‘찬제’를 통과하지만, 그들이 통과하는 가능성과 제한성은 무한히 다양하다. 그들은 자기의 보행 노선을 발명할 것이고, 어떤 보행노선을 선택하거나 배척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선택과 배척’의 과정이 바로 그들이 그들의 발걸음을 통해 창조적으로 발명하는 ‘공간수사학’이다. 그들은 이를 통해 도로점용자, 다른 행인들과 사회관계를 구성한다. 이러한 공간수사의 구성, 인용, 혹은 대립과 단절을 통해, 행인들은 그들이 선택한 노선에 대해 증명하고, 의심하고, 시도하고, 벗어나거나 멈춘다.

행인의 ‘공간수사학’은 프로이트가 말한 꿈꾸는 과정의 두 가지 발생기제, ‘전이(Transference)’와 ‘압축(Condensation)’에 대응된다. 전자는 일부 공간을 강조함으로써 전체 공간을 대표하는 것이고, 후자는 연속된 공간을 생략함으로써 공간의 진실성을 해산하는 것이다. 즉 행인의 눈에 ‘찬제’는 도시 설계자가 설계한 지리적 공간도 아니고, 상상인들이 인도를 침범하여 마련해놓은 공간도 아니다. 그들이 걷는 거리는 지리적 공간 의미에 있어서의 가도(街道)와 결코 동등하지 않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도에 가공을 하였고, 이 지리공간을 뒤집어, 공간의 어떤 부분은 과장하여 심지어는 전체를 대표하기도 한다. 가도의 일관성은 해체되어 고립된 경관이 된다. 지리공간으로서의 ‘찬제’의 일관성과 통계의 미상의 수량은 일종의 주관적인 느낌과 진실로 대체된다. 이것은 보행자의 주행 스타일과 자태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며, 이러한 ‘공간수사학’은 고정시킬 수가 없으며, 속속들이 모든 것을 기록할 수도 없다. 그러나 바로 그것을 통해 도시공간의 설계와 기획의 ‘본의(本義)’가 해체되거나 왜곡되는 것이다.

(2) ‘찬제’를 구술하다

특정한 생활구역으로서 ‘찬제’는 수많은 주민이 장기간 생활하는 환경이면서, 수많은 사람(예를 들면 대학생들)들이 임시로 생활하는 환경이기도 하다. 사회의 변천은 ‘찬제’의 역사적 면모를 빠르게 바꾸고 있으며, 역사유적에 덧붙여진 문화적 기억을 매몰시키기도 한다. ‘찬제’라는 생활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말한다면, ‘찬제’는 역사적 깊이를 갖고 있으며, 정(情)을 느낄만한 따뜻함도 갖고 있다. 비록 여기가 혼란스럽고 떠들썩하며, 질서가 거의 없지만, 오랫동안 살고 있는 주민이 말한 것과는 같다. “우리 집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컸죠...”, 이곳은 그에게 있어 아주 ‘특별’해서, 곳곳에 이야기가 있으며, 곳곳에 모두 기억이 있다. 심지어는 비록 그들 기억 속의 상점들이 벌써 문을 닫았을지도 모르지만, 중국환메이대학의 졸업생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곳의 식당이나 ‘카페’를 그리워한다. ‘찬제’를 유유히 걸으면, 그 속의 어떤 지표라도 어느 행인 혹은 주민에게 역사적 추억과 서술을 펼치는 ‘색인(索引)’이 될 수도 있으며, 이 추억과 서술은 한 쪽의 부조 회

화 같기도 하여, 그 속에서 연관되는 원소 간의 관계는 아주 모호하다. 그것들은 지리공간 위의 일종의 서사성의 공간실천에 기초하며, 그것들은 구조화된 '공간 텍스트' 위에 모종의 '반(反) 텍스트(Anti-Text)'를 창조해내며, 이 '반 텍스트'는 천연적으로 '공간 텍스트'의 의의를 왜곡, 전이, 혹은 변경하고, 기타 공간 의의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도록 이끈다.

더구나 서로 다른 주체의 기억은 분산적이고 자질구레하여 난잡하며, 당연히 자리를 정할 수도 없다. '찬제'에 관한 기억은 대부분 사람들의 머리 속에 깊이 잠들어 있고, 그것들은 단지 특정한 시기에야 주체로부터 깨어난다. 이곳의 주민은 늘 "당신들은 모릅니다. 이곳은 옛날에 ...가 있었죠."라고 말할 것이다. '옛날에 있었다'는 그것이 이미 소실되어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볼 수 있는 지표(地標) 배후의 역사 습곡(褶曲) 속에 숨어 있다. 대다수의 경우 그것은 단지 개인적인 회상일 뿐이며, 결코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없다. 그러나, 도시의 일반 생활인을 놓고 볼 때, 생활공간의 역사기억은 필경 이 거리의 영혼이 존재하고 있는 곳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람들이 '찬제'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떠나기 싫어하는 것은 이곳이 어떤 편린화되고 은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떠들썩하고 지저분한 '공간 텍스트'의 배후에 숨어있고, 그것은 일련의 누적된 세월이며, 오히려 주체의 기억 속에서는 소실되었다. 정확히 말한다면, 이러한 지점은 바로 일종의 특수한 기호이며, 그것은 행인(行人)의 몸에서 어떤 유쾌함 혹은 고통스런 체험을 불러일으킨다.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이 거리를 가로지르거나 걸음을 멈추는 것에 대한 추억과 서술은 상술한 '공간수사학'에 대한 보충과 구체화이며, 또한 '공간 실천'에 대한 각종 가능성 행위의 표현이기도 하다. 특정 개체 혹은 군체(群體)의 모든 '공간'에 대한 이해는 다 그(들)의 공간의 크고 작음, 경계, 그리고 특성에 대한 이해와 관련이 있다. 상술한 몇 개의 기본 척도에 기초하면, 공간의 의의와 분류 문제에서의 다른 해석이 나오게 된다. '공간'에 관한 다른 해석 및 관련 서술은 심지어 공간 속의 실천(연행)에 전제를 제공하고, 그것은 각종 행동을 공연하는 극장을 만들고, 사람들이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찬제' 중간쯤의 길 북쪽의 인도에 한 대의 중형 트럭이 연중 내내 서있는데, 그곳은 중년 부부가 쓰레기를 회수하는 장소이다. 그들은 인도를 침범했을 뿐만 아니라, 차도 중간의 아주 큰 공간마저 침범하였다. 그들이 도로 점용에 종사하고 있는 역사 서사(敘事)는 그들이 이 장소에서 벌이고 있는 사회실천에 합법적인 극장을 제공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공간에 관한 서사는 심지어는 공간실천보다 먼저이고, 전자는 후자를 위해 강역을 개척하고,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찬제'를 걷거나 혹은 걸음을 멈추는 것, 행인은 이미 정해진 공공공간의 전제적(前在的, 이미 정해진 공간이 행인보다 먼저 존재함을 말함) 질서를 연습하는 것이자, 또한 기호 시스템으로서의 공공공간을 창조적으로 촉발하고 재편하는 것이다. 지리학적 의미상 아주 뚜렷한 거리의 배후-길을 가는 것과 서술을 통해-에는 생김새가 모호하고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무수한 거리가 존재하고 있다. 행인의 발걸음은 어떤 지점을 지나가거나 조직한다. 그것들은 이러한 지점에 대해 선택하고, 아울러 그것들을 연결하여 전체가 되게 한다. 그것들은 이것을 통해 상호모순과 충돌의 문장과 노선을 만들어 낸다. 총괄해서 말하면, '찬제'를 거닐고, '찬제'를 서술하는 것-일상생활 실천의 전술(戰術)과 예술로서-은 이중적인 의미에서 '찬제'의 공간 윤곽을 모호하게 하였다.

4. '질서'와 '실천'을 초월하다

세르토의 '공간 기획'과 '공간 사용', '책략'과 '전술'에 대한 구분은 도시 일상생활 실천에 대하여 중요한 시사적 가치를 갖는다. '기획'과 '책략'은 현대적 논리에 기반해 파생된 닫힌 시스템으로, 그 전체는 '이성'의 지고무상(至高無上)함에 대한 추앙과 믿음이다. 그것은 "이지(理智)는 응당, 그리고 충분

히 세계를 세우거나 복원할 수 있고, 우리는 어떤 질서나 혹은 숨어 있는 작가의 그러한 비밀들을 열독할 필요는 없으며, 반대로 일종의 질서를 생산해야 하며, 아울러 이 질서를 야만스럽고 타락한 사회의 신체에 서술해야 한다. 서술은 역사에 대한 권리를 획득함으로써, 이 역사를 교정하거나 굴복시키고, 혹은 교육하기에 편리하도록 하였다.¹⁹ 반대로, ‘사용’과 ‘전술’은 마치 피와 살이 있는 몸이 흉대 받거나, 짓눌릴 때 나오는 비명, 그리고 소리를 낼 수 없는 고통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세르토의 ‘실천의 예술’에 대한 강조는 바로 일종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반항적 노력이다.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에 관한 학술적 성찰은 중국 민속학에 대한 사고(思考)를 직접적으로 촉발하였다. 일부 민속학자는 ‘미완성의 모더니즘’ 이론을 견지하며, 중국은 더욱 철저한 현대화 개혁이 필요하다고 여긴다. 다른 일부 민속학자들은 ‘막을 수 없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조’를 동정하여 중국은 이미 신매체, 신기술이 휩쓸면서 정보화와 소비사회로 진입하였고, 일체의 현대성의 폐단은 마찬가지로 현재 중국사회를 에워싸고 있다. 게다가 현대화 이성을 견지하는 주체는 본래 세계 가치의 구호를 내걸고 자신의 사회에 유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현대이성’ 자체는 성찰과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공공질서’와 ‘개인적 실천’ 사이는 천생적으로 상호모순인가? 세르토는 ‘생산’과 ‘제품의 사용’ 과정 중에 숨어 있는 ‘부차 생산’ 사이의 차이성 혹은 유사성을 주목하며, 양자 간 영원한 차이성을 암묵적으로 인정하였지만, 양자 간에 분리할 수 없는 의존성도 마찬가지로 강조하였다. 이와 동시에, 그는 또 ‘공공질서’의 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토론을 거의 접었고, ‘개인 실천’의 잠재적 의의와 가치를 직접적으로 강조하였다. 이것이 바로 그의 이론이 중국의 일상생활 실천의 연구와 서로 맞지 않는 지점²⁰이기도 하다. 그는 사회 공공법칙의 사용자가 사회법칙을 자신이 추구하는 은유와 생략의 수사로 변하는 것을 강조할 때, 그는 사회 공공법칙의 프랑스 사회생활 속에서의 패권적 지위를 가정하였지만, 중국의 도시에서는 - ‘잔재’는 중국 현대 도시의 축소판이다 - 사람들은 어떤 공공공간도 개인의 욕망과 이익의 원시림으로 삼기 때문에, 공공법칙은 유명무실하다.

포스트 모더니즘적 색채가 강한 세르토의 사상은 아마도 중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결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우리들로 하여금 극단적인 ‘현대화’의 사회적 폐단을 경계하도록 일깨워주기도 한다. 미래의 중국 도시 일상생활의 육성은 보통 민중의 질서인식을 강화하는 한편, 사람들의 보편적인 심리 욕구를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 중국 민속학자가 미래 중국민중의 일상생활 실천에 관심을 기울이려면, 동시에 두 가지 일을 전개해야 한다. 첫째는 서양명명의 총체적 틀 안에서 현대적 문제를 성찰하는 것이며, 둘째는 중국 자신의 문화전통 중에서 현대적 위기를 풀 수 있는 출로를 모색하는 것이다.

注

1 중국어 ‘古道經營’은 “도로를 점유하여 상업행위를 한다.”는 의미다.(역자 주)
 2 성관(城管)은 ‘城市管理執法’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도시’를 뜻하는 城市의 ‘城’, ‘관리하다’는 의미의 ‘管’ 두 글자를 합친 말로서, 우리말의 ‘단속반’에 해당된다.(역자 주)
 3 중국어 원문의 ‘规训’은 미셸 푸코의 저서 『감시와 처벌(Discipline and Punish)』(프랑스어: Surveiller et punir)에서 감시의 의미를 갖는다.
 4 Michel de Certeau, 1988,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 translated by Steven Rendall,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XVIII-XX.

5 ‘톈젠(電建)’은 전력건설집단유한공사(電力建設集團有限公司)의 약칭이다.(역자 주)
 6 피아노를 생산하는 공장이다.(역자 주)
 7 금속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다.(역자 주)
 8 환메이(傳媒)는 ‘傳播媒介’의 약칭으로, 대중매체(massmedia)를 의미한다.(역자 주)
 9 민용주택은 ‘상품(商品)주택’이라고도 하는데, 상업용지에 건립되는 ‘상용(商用)주택’과 구분된다. 여러 차이

- 점이 있지만, 상용주택이 상업용 시설과 주거가 결합 되는데 반해, 민용주택은 주거용의 집만 지을 수 있다.(역자 주)
- 10 분양과 임대 가능한 상업용 점포를 말한다.(역자 주)
- 11 사구거민위원회(社區居民委員會)는 도시나 읍 등 비농촌 지역에서 거리(街道)나 분구(分區)에 따라 설치한 주민자치조직으로, 농촌의 촌민위원회와 비슷하다. 사구(社區)는 'Community'의 번역어이며, 일련의 사회 집단이나 사회조직이 일정한 지역 또는 문화에 따라 형성한 공동체이다. (역자 주)
- 12 장애인(殘)이 건설한(建) 거리(街)라는 뜻이다. (역자 주)
- 13 '壯志未酬'은 당나라 리핀(李蘋)의 『춘일사귀(春日思歸)』 중 "壯志未酬三尺劍, 故鄉空隔萬重山"에서 왔다. (역자 주)
- 14 어떤 행위가 일정 정도의 집단성이나 보편성을 갖고 있다면, 이 행위가 비록 비합법적이거나 불합리한 요소가 있더라도 법률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역자 주)
- 15 헤이모디(黑摩的)는 도시에서 불법적으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삼륜차나 오토바이를 말한다. '黑'은 불법을, '摩'는 오토바이를, '的'는 택시(탈 것)를 의미한다.(역자 주)
- 16 미셸 드 세르토, 『일상생활실천 1, 실천의 예술』, 광림린, 황춘리우 역, 南京大學출판사, 2015년, 제170쪽.
- 17 액체 혹은 기체 안에 떠서 움직이는 작은 입자의 불규칙한 운동을 말한다.(역자 주)
- 18 미셸 드 세르토, 2015년, 제178쪽.
- 19 미셸 드 세르토, 2015년, 제233쪽.
- 20 취정동, 『'산수' 몰락과 현대 중국의 정신 위기』, 『문화종횡(文化縱橫)』, 2017년 4월.

참고문헌

- Certeau, Michel de 1988,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미셸 드 세르토(광림린·황춘리우 역), 『일상생활실천 1, 실천의 예술』, 南京大學출판사, 2015.
- 취정동, 『'산수' 몰락과 현대 중국의 정신 위기』, 『文化縱橫』, 2017년 4월.

부록1. '찬제' 평면도

각종 임시정차 차량

장기간 인도를 점유하고 있는 폐기 차량

전봇대



